李 하락, 朴 소폭 상승

李-朴 지지율 격차 10%P 안팎 대폭 줄어

한나라당 경선(8월 19일)을 한달 정도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안팎까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공세에 시달려온 이 전 시장의 지지율이 30% 중반 대까지 하락한 반면,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답보 내지 소폭 상승한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이하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결과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각각 37.2%와 27.6%로 9.6%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달 9일 조사 때에 비해 이 전 시장은 3.9%포인트 하락한 반면 박 전 대표는 2.7%포인트 올랐다. 특히 충청권과 영남권에서는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 전 시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각각 34.8%와 25.6%로 9.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지난달 5일 조사 때의 39.9%와 23.7%에 비해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21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10.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 전 시장의 지지율이 34.3%로 지난달 30일 조사(39.8%) 때보다 5%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박 전 대표의 지지율도 23.6%로 지난번 조사(24.4%)에 비해 소폭 하락한 때문이었다.

또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의 조사에서는 각각 38.7%와 28.2%로 10.5%포인트의 격차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이 전 시장은 35%대의 확고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박 전 대표는 20%대 초·중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경선전 초반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반면 박 전 대표 캠프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대선주자가 아니라 한나라당 경선후보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지도 격차 축소 폭이 훨씬 크다"면서 경선 승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된 각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대선주자들 가운데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지지율 약진이 두드러졌다. MBC 조사에서는 9.0%의 지지율로 최근 1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손 전 지사는 매경 조사에서 8.0%, 조선일보 조사에서 6.7% 등의 지지율을 보여 다른 범여권 후보들을 큰 폭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집안 싸움 자제" "상승세에 찬물"

李-朴, '광주 합동연설회 연기' 공방

24일 광주에서 예정된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합동연설회 연기 방침을 둘러싸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이 또 한차례 맞붙었다.

전날 제주 지역 연설회에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특별한 대비책 없이 광주 행사를 강행할 경우 인명피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도부가 23일 광주행사 '무기연기'를 당 선관위에 권유키로 한데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박 전 대표 측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이 전 시장 측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등을 거론하며 국민여론을 감안한 '집안 싸움 자제'를 거듭 강조한 반면, 박 전 대표 측은 "검증 청문회 이후 한창 추격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유세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표 측은 지도부 결정 과정에 이재오 최고위원 등 이 전 시장 측 성향 의원들이 사실상 대거 개입한 점 등을 거론하며 지도부에 대해 "심판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설회 일정은) 지금대로 가야 한다"며 "추격전이 본격화되고 이 전 시장과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들자 어떻게든 리듬을 깨고자 하는 게 아닌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캠프 종합상황실장도 "이 전 시장 측에서는 토론회도 안 하겠다, 합동연설회도 과열을 핑계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거부하고 어두운 장막에서 밀실선거, 돈선거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당원이든 국민이든 직접 (이 전 시장을) 보기만 하면 표가 뚝 떨어지니까 이 전 시장이 연설회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어제 이 전 시장 캠프 자체회의에서 연설회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이번에도 이 전 시장 쪽 요구를 들어준다면 지도부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이 정도 되면 선수 실격 사안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전 시장 측 박형준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있는데, 광주에서 몸싸움이라도 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당이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호영 비서실장 역시 "아프가니스탄에서 국민 20여 명이 인질로 잡힌 상태에서 당내 행사를 하면서 충돌이 빚어지면 무슨 짓이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연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태영 공보특보는 논평을 통해 "(어제) 이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는 조직적 책동이 일어났고, 당은 이런 사태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예방 대책이 없다면 합동유세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3일 오후 광주비엔날레카페에서 가진 지역 문화예술인과 간담회에서 광주 문화수도 건설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덕룡 의원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

한나라당 5선 중진인 김덕룡 의원이 23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당의 대선후보로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와 이 전 시장의 여의도캠프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범여권의) 음해와 공격 표적이 선두주자인 이명박 후보에게 집중되고, 그들이 이 후보를 그런 방식으로 무너뜨리면 제2, 제3의 후보를 공략할 것"이라며 "이 후보를 우선 지켜내는 것이 제2, 제3의 후보를 보호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지름길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이 후보를 지지키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이 이 전 시장과 같은 '6·3세대'이자 '친구'임을 거론하면서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은 당원으로서 도리가 아니고 45년 인간관계를 가져온 한 사람의 친구로서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 중진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으로 이른바 'DR 계보'로 불리는 당내 인맥을 확보하고 있어 당내 경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울러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조직인 '나라사랑실천본부' 소속 서석재, 김우석 전 의원 등 회원 300여 명도 같은 장소에서 회견을 갖고 "김덕룡 동지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광주, 세계 문화수도로 지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3일 "광주를 세계적 문화수도로 발전시키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광주비엔날레 카페에서 황인옥·박유복·김성미씨 등 10여명의 지역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갖고 "예향이 그냥 예향이 된 게 아니다. 광주와 전남은 예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래서 비엔날레도 열리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경선 연설회 일정 연기에 대해 "지도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원칙을 갖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경선 일정·경선 룰·TV토론회 일정 등을 지키는 것이 지도부의 큰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수가 경기를 뛰다가 룰을 바꿔달라고 한다고 심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과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간담회 직후 화순으로 이동해 당원간담회를 갖는 등 호남공략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앞서 오전 박 전 대표는 여의도 캠프에서 이어진 각 단체의 지지선언에 참석했다.

구 민주당 출신의 김원길 전 복지부장관이 이끄는 '민주정우회' 인사 70여명은 이날 캠프에서 박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원산지표시제 확대 급하다

이종태

경제부 차장

지난 13일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1천200t의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눈 깜짝할 새에 팔린데 이어 오는 26일에는 이마트 판매대에 또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깔린다.

또 8월에만 7월 수입량의 2배에 달하는 3천500t이 들어올 예정이다. 동네 할인점에만 가도 어렵지 않게 수입쇠고기를 살 수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수입쇠고기 쓰나미'이다.

무역개방시대에 이같은 현상을 탓할 수도 없지만, 소값 하락으로 깊어지는 축산농가의 한숨을 떠올리면 가슴부터 저려온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지난해부터 국제 곡물값이 치솟으면서 국내 사료값도 춤을 추고 있다. 올해 벌써 두차례 인상에 이어 9월 추가인상설로 축산농민들의 속은 숯덩이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전남지역 산지소값은 불과 6개월 새에 20% 떨어졌다. 나주 농민 한모씨는 "사료값도 사료값이지만, 소를 싸게 내놔도 이젠 안 팔리는 게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사료값을 보전해주든지 사육비를 저리융자해주든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소 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비싸게 키운 한우가 제값만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축산농가들의 속을 끓게 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는 단속의 실효성과 통상마찰 등의 이유로 7년째 표류하다 우여곡절 끝에 올 초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표시 적용 음식점 규모를 현행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확대하고, 품목도 쇠고기와 쌀에서 돼지고기·배추김치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또 6월 임시국회에서 멈춰섰다. 결국 올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년 후인 2009년부터나 제도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화순의 한 축산농민은 "요식업자들과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원산지 표시제 하나 정착시키지 못해 수입쇠고기의 국내 연착륙을 돕는 꼴이 됐다"면서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중요한 장치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국민건강 보호,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앞으로 대선정국 등과 맞물려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이 제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올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속전문인력 보완, 식육업자·유통업자까지 단속 확대, 원산지 표시기준 일원화 등 원산지표시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종합처방전'도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

/jtlee@kwangju.co.kr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공인중개사 1,2차(월~토) 시험일 : 10월28일
▶주택관리사 1,2차(월~토) 시험일 : 10월21일
▶주택관리사 2차(회계포함) 주말반(토,일) 시험일 : 10월21일
◉모집대상
▶훈련도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40세 이상이신 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기타사항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수료후 100~80% 환급
◉접 수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컴 퓨 터 과 정-
◉모집과정
▶정보화기초1과정 윈도우XP, 인터넷활용, 한글문서편집 활용, 유틸리티활용
▶정보화기초2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
◉기타사항
▶수료후 100% 환급
◉접 수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수업시간
▶월,수,금 19 : 00~21 : 00(기초2) ▶화,목 19 : 00~21 : 00(기초1)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 特報:세무公務員 3000명 모집, 합격의 절호의 기회!! =
7·9급 공무원 大특강
9급 세무직 2700명 공채 ◉1차, 올하반기 1300명 ◉2차, 내년초 1400명 (사상초유 大모집)
全南 ■7·9급 일반 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시험 ■9급 교육 행정직 000명 올하반기 시행
개강 8月1日 주·야반 모집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7·9급 공무원
개설직종·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보건직, 출입국관리직, 기술직
7·9급 공무원 짝수반 첫진도 (1개월간)
전남일행·교행문제풀이 (1개월)
올세무직 第3,000여명모집
전남교육행정 문제풀이 (1개월)
한빛공무원학원 개강▶8월 1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 (전직종 첫진도 = 사전예약접수 중)

Gallery RODEM 직수입 앤틱 전문매장-
로뎀갤러리 신제품출시
로뎀갤러리 Gallery RODEM 로뎀갤러리
찾아오시는 길
특별기획상품행사
●진열상품 30%~최고50% (일부품목제외)
대표전화 : (062) 653-4022
물류센터 :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